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
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
http: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중동아프리카협력과 박찬기 과장(02-2110-3964), 손성동 사무관(3967)

리비아 사태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

- 리비아 신정부와의 신뢰구축에 역점을 두면서 정세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키로 -

□ **지식경제부**는 9.2(금)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**리비아 사태**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, **우리기업들의 리비아 전후 재건사업 진출대책** 등을 논의하기 위해 플랜트 업계, 한전·석유공사·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, 무역보험공사, 수출입은행 등 관련업계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음

* 리비아 전후 재건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전망으로, MEED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리비아내 개발사업은 1,230억불 규모로 추정

□ '11.9.2(금)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대책회의(회의주재 : 김창규 전략시장협력관)에서는 리비아 사태 동향과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**플랜트·수출 재개, 유전·정유시설 복구, 유가** 등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음

○ 플랜트 분야는 리비아 **내전 이전 총 37억불 규모 8개 프로젝트**를 시공중이었으나, **현재는 모두 중단**중이며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**재개 예정임**

○ 한국이 리비아에 참여하고 있는 **유전**인 **엘리펀트 광구*** **생산 정상화**를 위해 **참여사간 연례회의를 개최**('11.9월, 이탈리아 ENI社 주관)**할 예정이며,** 광구 **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**하고, 이태리 ENI사(리비아 내 강한 영향력 보유)와 협력관계를 활용하여 **유망광구 진출을 도모할 계획임**

* 참여지분: 리비아 NOC 88%, ENI社 8%, 한국컨소시엄 4%(5,000b/d)

○ **또한,** 리비아는 **중동내 우리의 제6위 수출국**이자 제11위 교역국으로, 수출이 내전이후 80% 이상 급감하였으나 **리비아가 정상화되면서 급속히 회복할 전망**임

* 교역액(억불) : ('05)3.6 →('06)4.3 →('07)4.0 →('08)8.3 →('09)12.3 **→('10)14 →('11.6월)1.1**

○ 최근 국제유가는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가장 큰 변수로, **리비아 사태안정의 영향은 제한적**으로 보임

* 전문가들은 '11년 하반기 **국제유가의 하향안정화를 전망**하면서도 **신흥국 수요강세 등으로 유가하락폭은 제한되어 약 100~105$ 수준**으로 전망

□ 정부는 우선 **과도국가위원회**(NTC)**와의 신뢰구축에 역점**을 두면서 리비아 정국 동향을 면밀히 분야별로 지속 점검할 계획임

○ 지난 8.30일 **리비아 재건협력 T/F팀*이 구성**되었고, **1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**, 리비아 재건 국제회의에 고위급 파견(9.1), **민관합동 대표단 리비아 파견 추진 등**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

* 지경부·외교부·국토부 국장이 공동으로 리비아 재건협력 T/F팀장을 담당하고, NTC 및 주요 발주처 인사의 방한 초청 등 네트워크 구축, 리비아 재건시장 진출 지원, 한-리비아 경제공동위 의제 발굴 등 활동 예정

○ 또한, '12년에 리비아 진출 우리기업에 대해 **지식경제부 플랜트 F/S 자금** ('11년 40억), **국토해양부 시장개척자금**('11년 22억) 30% 내외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며, KSP(정책자문) 및 KOICA(역량강화) 등을 통해 리비아 재건사업을 지원할 예정임

○ 민간 차원에서는 **리비아진출 16개 업체가 5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**(8.25)하여 리비아 NTC측에 제공할 예정이며, 향후 리비아 재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

참고 리비아 사태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요

○ **(일시·장소) '11.9.2(금)** 08:00~09:30, 팔레스호텔 로얄볼룸(1층)

○ **(참석) (정부)** 지경부 전략시장협력관, 전략시장정책과장, 동남아과장, 중동아프리카과장, 구주협력과장, 플랜트팀장 등

(민간) 플랜트 업계(28명), 유관기관(플랜트산업협회·수출입은행·무역보험공사) 등 40여명

ㅇ 주요 참석기관

지식경제부	대림산업
한국무역보험공사	STX중공업
한국수출입은행	대우조선해양
한국전력공사	GS건설
한국가스공사	롯데건설
한국석유공사	성진지오텍
대우인터내셔널	삼성물산
현대건설	현대엔지니어링
대우건설	삼성중공업
포스코건설	쌍용건설
현대건설	한진중공업